

“공유 가치 실현 거점” 광주 광산공유센터 문 ‘활짝’

하남3지구에 1층 마을커뮤니티 공간 등 3층 건물 조성

생활·캠핑 등 118종 270여 개 물품 비치...공간 등 대어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8일 ‘공유도시 광산’을 이끌어 갈 핵심 거점인 광산공유센터의 문을 열었다.

광주 자치구 중 가장 먼저 문을 연 광산공유센터는 물품과 재능을 나눠 쓰고, 단절된 관계를 이어 연대의 싹을 틔우는 거점으로, 공유 가치를 확산하고 시민의 실천을 적극 유도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조성 공사를 마치고 지난 5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이날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

이날 기념행사는 센터의 실질적 ‘주인장’이자 공유 가치를 실현할 주체인 시민과 함께 축하하며 시설을 둘러보고, 체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광산공유센터는 하남3지구(광산구 단전1길 14, 하남동 1009번지)에 지상 3층 건물로 조성

됐다. 1층은 마을커뮤니티 공간, 2층은 물품공유실과 공유체험실이 있고, 3층은 공유부엌, 공유창작실, 재능프로그램실, 다목적실로 구성됐다.

물품공유실에는 캠핑용품, 생활용품 등 118종 270여 개 물품이 비치돼 있다. 비치된 물품과 더불어 공유체험실, 공유부엌 등 공간을 필요할 시민 누구나 빌려 사용할 수 있다.

광산구는 공유 문화가 활성화되도록 광산공유센터에서 재능공유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한편, 관내 공유자원을 조사해 공유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공유자원 연계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광산구는 센터의 문 여는 날을 축하한 시민과 ‘내가 바라는 공유센터’를 주제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시설 관람을 진행했다. 이후



위기 대응, 요리 수업, 방향제 만들기 등 체험 행사도 운영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공유는 새로운 방식,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이끌 안내자이자 나침반

이다”며 “같이의 가치를 세워 공동체의 꽃을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광산공유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형택기자

광주다움 통합돌봄 현장

이용자 안내문 제작·배포

이용자-제공자 간 지켜야 할 사항 제시

광주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현장에서 이용자와 제공자 간 존중을 바탕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광주다움 통합돌봄 이용자 안내문을 제작·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시행 4개월 만에 5188명의 시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의 위기상황을 해소하는 등 순항하고 있다. 이는 가정 방문을 통해 돌봄계획을 수립하는 공무원과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38개 기관 710명의 돌봄 제공자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일부 돌봄 이용자들이 돌봄 제공자에게 폭언·성희롱을 하거나 서비스 범위를 넘어서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 광주시는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해 이용자 안내문을 제작했다. 안내문은 돌봄 제공자가 전담팀(TF)에 직접 참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자치구와 제공기관 의견조치를 통해 제작했다.

안내문의 주요 내용은 ▲이용자와 제공자 간 존중하는 호칭 ▲존중하는 말과 행동(성희롱·폭언·욕설 등 폭력행위 금지) ▲예약된 시간과 장소 지키기(예약부도 금지) ▲사전 정보공유 ▲적절한 돌봄 업무 범위 등이다.

총 10쪽으로 채워진 안내문은 이용자와 제공자 간 서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짧고 명료하게 제시했다. 이용자는 제공자의 노력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제공자는 이용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서로 좋은 돌봄에 함께 동참하도록 각각의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해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안내문은 동 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 담당 공무원이 돌봄 필요도 평가를 위해 가정을 방문할 때 이용자에게 배부한다. 담당 공무원은 서비스가 시작될 때부터 이용자와 제공자 간 좋은 관계가 설정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자세히 설명하고 안내할 계획이다.

안내문과 함께 제작·배포되는 홍보 포스터는 서비스 제공인력인 서비스 게시 단계에서 이용자 가정을 처음 방문할 때 이용자와 제공자가 지켜야 할 사항들을 함께 읽고 서명하는 뒤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는 좋은 돌봄 캠페인에 사용한다.

정영화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돌봄 제공자는 정성으로 이용자를 돌보고 돌봄 이용자는 제공자를 귀하게 여겨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함께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서선옥기자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수목 대중화’ 표방...전문 전시해설사 8명 선정·운영

친절한 설명으로 작품 이해 도와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사무국이 수목의 대중화를 위해 비엔날레 기간 동안 전문 전시해설사를 운영한다.

9일 비엔날레 사무국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 개막하는 ‘2023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전시작품에 대한 쉽고 전문적인 해설로 관람객의 작품 이해를 도와줄 전시해설사(도슨트) 8명을 선정했다.

전시해설사들은 관람객에게 작품에 담긴 의미와 전시 기획 의도를 전달하는 등 작품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을 제공한다.

비엔날레 사무국은 전시해설사 운영에 앞서 사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목포·진도의 주전시관과 특별전시관에 전시해설사를 배치해 누구나 즐기는 전시가 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박근식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사무국장은 “전시해설사의 활약을 기대한다”며 “다양한 전시작품과 재밌는 해설을 통해 남녀노소 모두 즐기는 행사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개막을 3주 앞둔 ‘2023 전남국제수목비



2023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홍보 포스터. (이미지=비엔날레 사무국 제공)

엔날레는 ‘물드는 산, 멈춰선 물- 송고한 조화 속에서’라는 주제로 9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목포문화예술회관과 진도 운림산방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슬비기자

전남도 ‘화이트바이오 산업’ 세계시장 개척 거점 구축

여수국가산단에 생분해성 플라스틱 인증 지원센터 유치

전남도가 친환경 소재산업인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과 세계시장 개척을 위해 여수국가산단내에 ‘생분해성 플라스틱 평가·인증 지원센터’를 구축한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센터 구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평가 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이뤄진다.

센터는 국내 대표 친환경 소재 인증기관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주관으로 올해부터 5년간 총사업비 225억원을 들여 여수국가산단 미래혁신지구에 구축된다.

전남테크노파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연구원 등이 참여해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시험·평가·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기업 지원체계를 마련해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을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평가·인증 센터 구축’, ‘생분해 플라스틱 장비 구축’, ‘생분해 평가법·바이오탄소 함량 고속분석법 개발’, ‘해의 시험기관 지정을 통한 해외 인증 지원’, ‘생분해성 플라스틱 인증 글로벌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바이오 화학이라고도 불리는 화이트바이오 산업은 식물, 미생물, 유기성폐자원 등을 활용해 기존 석유화학제품을 바이오 기반 소재로 대체하는 산업을 통칭한다.

기존 화학소재보다 탄소를 적게 배출하며, 배출된 탄소 또한 식물 등 바이오 물질에서 유

래돼 탄소중립이 가능한 친환경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세계시장은 2021년 약 100조원에서 2026년 303조원으로 연간 24.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시장은 2021년 2079억원에서 2026년 4426억원으로 연간 16.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시장 규모가 세계시장의 0.2~0.5% 정도에 불과해 관련 산업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도록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전남도는 기존 석유화학산업과 연계한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시제품 제작·양산지원·평가·인증·재자원화 등 원스톱 지원하는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평가·인증 지원센터를 통해 제품의 국내·해외 인증을 지원해 국내시장뿐 아니라 세계시장을 개척하도록 도울 방침이다.

김종갑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친환경 소재 수요 증가와 탄소중립 추세에 따라 화이트바이오 산업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전남의 주력산업인 석유화학과 바이오산업을 융합해 화이트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지정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조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고합니다.

- 발전설비용량 : 700kW
- 사업개시예정일 : 2023. 8
- 사업운영기간 : 2023. 08 ~ 2048. 07(예정)
-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2023. 07. 31. ~ 2023. 08. 16.까지 전남 목포시 미항로 191-4 (2층) 일양산업으로 인적사항과 의견을 기재하시거나 우편으로 송부하시거나, E-mail : ilyang00@daum.net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 발전소명	6. 신청인	7. 용량(kW)	8. 발전소 위치 및 면적
1 교산1호 태양광발전소	김광택	99.56	전남 나주시 세지면 교산리 200-1, 200-2, 201
2 교산2호 태양광발전소	최남수	99.56	
3 교산3호 태양광발전소	최남수	99.56	
4 교산4호 태양광발전소	최남수	99.56	
5 교산5호 태양광발전소	김광택	99.56	
6 교산6호 태양광발전소	박금자	99.56	
7 교산7호 태양광발전소	김지영	99.56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므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월	고소득층	중소득층	저소득층
5월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월	1.7배	2.1배	2.7배
3월	48,103원	26,697원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총량인 129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고객센터 1577-1000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하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쁨과 근로 모두 행복해진다.

국민 이해관계에서 국민 행복입니다.